환경경영 모델기업 선정

공진청, ISO14000 인증획득 지원 … 화학 18개사로 최대

「환경경영 모델기업」으로 육성될 41개 기업이 최종 확정됐다.
공업진흥청은 96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도입할 국제환경경영규격(ISO 14000시리즈)의 국내기업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범인증사업(파일럿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환경경영 모델기업 선정은 이 사업의 일환이다.
공진청은 지난 1월부터 실시된 환경경영시범인증계획에 총 61개의 공장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중 연말까지 지도를 실시할 경우 ISO 14000시리즈 인증획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41개 공장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도기관별 환경경영 모델기업 육성대상 기업

지 도 기 관	대 상 기 업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태평양, 금호타이어, 한화, 국도화학, 한솔제지, 유한킴벌리
한국품질인증센터	호남석유화학, LG화학, 금호쉘화학, 대림산업, 한국종합화학, 금호석유화학, 유공옥시케미칼, 제일합섬, 포스코캠, 국제염직, 한화에너지, 호남정유, 유공, 쌍용정유
생산기술연구원품질인증센터	현대전자산업, 한국델코전지, 삼성전자, LG정보통신, 삼성전관, 두산전자, 삼성전기
한국능률협회품질인증센터	연합철강, 코오롱건설, 대림엔지니어링,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프라자호텔, 삼동농산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만도기계, 한화기계, LG산전, 서울차륜공업, 한국OSG

선정된 기업들은 대기업이 35개, 중소기업이 6개로 업종별로는 화학업종(18개)이 가장 많았고 기계(8), 전기전자(7), 철강·건설·식품·호텔·엔지니어링·공공서비스·섬유·염색(각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진청은 이들 41개 기업에 대해 전담지도기관과 심사원을 배정한 후 10월말까지 ISO 14000시리즈 인증획득이 가능한 수준까지 지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도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종합평가를 실시해 ISO국제 환경경영규격과 부합된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경영시범기업」을 인증하고 시범기업중 관리체계와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총과 공동으로 환경경영대상을 시상할 방침이다.
이번 대상기업 선정은 국제적인 절차에 의해 환경심사원보로 양성된 89명의 심사요원을 54개기업 현장에 투입, 약 2600개 항목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환경경영도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화학저널 1995/6/5>